

# 한국농어촌공사 영주·봉화지사, 운영대의원 정기회의 열어

오공환 기자 | 승인 2026.06.15 18:29 | □호수 1065

농업기반시설 관리와 농지은행 사업 추진현황 공유  
지역 농업인 의견 수렴...현장 중심 농정 추진 방안 논의



한국농어촌공사 영주·봉화지사(지사장 조정옥)가 지난 11일 지사 회의실에서 운영대의원과 관계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상반기 운영대의원 정기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와 농지은행 사업 등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지역 농업인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과 하반기 사업 계획을 보고했다. 이어 농업생산 기반시설의 안정적인 유지관리 방안과 농지은행 사업 활성화 방안, 지역 농업 현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참석한 운영대의원들은 농업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전달하며 농업인의 입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영주·봉화지사는 건의된 내용을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해 현장 중심의 농정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운영대의원 제도는 농업인의 의견을 공사 사업에 반영하고 지역 농업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농업 현장과 공사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맡고 있으며, 주요 사업에 대한 자문과 의견 제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조정옥 지사장은 “운영대의원들의 의견은 지역 농업 발전과 농업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업인 소득 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오공환 기자 okh7303@hanmail.net